

전남광주 고용률 64.8%… 취업자 2만명 늘었다

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 실업률 2%로 하락

광주 제조업 10.6% 감소… 전남은 6.9% 증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9월 취업자가 18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늘었다. 고용률도 64.8%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다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에서는 감소해 산업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18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는 181만4000명으로 전년 동

월보다 2만명 (1.1%) 증가했다. 고용률은 64.8%로 0.6%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70.1%로 1년 전보다 1.3%p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 고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취업자는 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 (2.2%) 늘었다. 남성 취업자는 99만6000명으로 2000명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58.5%로 1.5%p 상승했지만 남성 고용률은 71.2%로 0.2%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 (3.8%) 증가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18만8000명으로 1만1000명 (6.1%)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21만3000명으로 3000명 (1.4%) 감소했다. 건설업은 14만4000명으로 7000명 (4.9%), 농림어업은 19만8000명으로 7000명 (3.4%) 각각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32만3000명으로 1000명 (0.4%)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지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의 고용은 위축된 것이다.

중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4000명

(1.7%) 늘었다. 임금근로자 전체는 126만8000명으로 4000명 (0.3%)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34만2000명으로 3000명 (0.8%),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으로 7000명 (11.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1만5000명 (2.9%) 늘었다. 자영업자는 43만6000명으로 5000명 (1.2%)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0만9000명으로 1만명 (10.3%)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함께 상용근로자도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와 비임금근로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실업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달 실업자는 3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000명 (20.0%)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0.5%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85만1000

명으로 1만명 (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6.2%로 0.4%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94만7000명으로 8000명 (0.8%)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제조업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고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했다. 광주 취업자는 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0명 (1.0%)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9만2000명으로 1만1000명 (10.6%)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7만3000명으로 2만2000명 (6.3%),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0만4000명으로 1만2000명 (12.6%) 증가했다. 광주 고용률은 62.8%로 1.1%p 상승했다.

전남 취업자는 10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1.2%)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명으로 8000명 (6.9%) 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7만5000명으로 5000명 (1.5%) 증가했다. 전남 고용률은 66.5%로 0.3%p 상승했다. 실업률은 광주 2.2%, 전남 1.9%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5%p 하락했다.

한편 2026년 3분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취업자는 18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8000명 (1.0%) 늘었다. 분기 고용률은 64.6%로 0.6%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0.4%p 하락했다.

다만 분기 기준 제조업 취업자는 20만9000명으로 4000명 (2.0%), 건설업은 14만5000명으로 6000명 (4.0%) 감소했다. 전체 고용지표 개선에도 산업별 고용 회복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한국광기술원-한국화학산업협회

광융합·화학산업 기술협력 ‘맞손’

연구개발·기업 애로기술 지원

한국광기술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광융합기술과 화학산업을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 기술지원에 나선다.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협회와 광융합산업·화학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기웅 한국광기술원장과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광융합·화학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비R&D 사업을 공동 발굴·기획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장비와 시험·분석시

설 공동 활용, 산업·기술·시장·정책 정보 교류, 세미나·워크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광학·센서·영상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화학산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화학제품 품질검사 자동화와 생산공정 이상징후 감지 등 비전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이 주요 협력 분야다.

양 기관은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기웅 한국광기술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최근 한국화학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학산업 및 광융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한국광기술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오피스텔 매매가격 떨어지는데 월세 상승

3분기 평균매매가 1억2236만원… 임대수익률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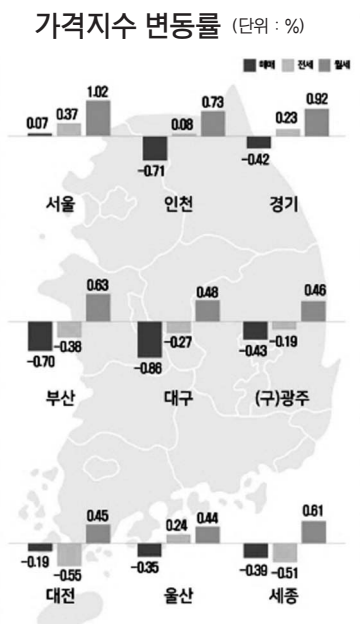
광주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월세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임대료는 오르면서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 기존 광주 지역의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보다 0.43% 하락했다. 2분기 하락률인 0.55%보다는 낙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의 매매가격 하락률은 전국 평균보다 컸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33% 떨어진 가운데 지방은 0.63% 하락했다. 광주는 지방 주요 시도 가운데 대구(-0.86%), 인천(-0.71%), 부산(-0.70%)에 이어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광주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3분기 0.19% 떨어져 2분기(-0.23%)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이 0.15% 상승한 것과 달리 지방은 0.32% 하락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광주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3분기 0.46% 올라 전 분기 상승률인 0.45%보다 오히려 소폭 확대됐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86%. 지방은 0.57%로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방 평균을 밑도는 수준은 아니었다.

9월 기준 광주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2236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1억167만원, 월세 보증금은 904만7000원, 평균 월세는 56만4000원이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2억2086만원과 비교하면 광주 오피스



텔의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임대수익률은 6.9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90%와 지방 평균 6.44%를 웃돌았으며, 시도별로는 대전 (8.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맛 성분 데이터로 예측

시판 김치 32종 분석해 모델 구축… 신맛 설명력 94.8%

김치의 성분 데이터만으로 사람이 느끼는 신맛과 짭맛, 단맛, 감칠맛, 매운맛의 강도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됐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성분 분석 결과와 관능평가 데이터를 연계해 5가지 맛의 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당류와 유기산, 아미노산 등 성분이 변하면서 맛도 달라진다.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는 숙련된 평가자가 직접 맛을 보는 관능평가가 주로 의존해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호명 박사 연구팀은 시판 배추김치 32종을 4도에서 0주·3주·7주간 저장해 총 96개 시료를 확보했다. 시료별 pH와 적정산도, 염도 등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당류·유기산·아미노산·캡사이신도

이드 등 44종의 성분을 정량 분석했다. 훈련된 관능평가단은 같은 시료의 신맛·짭맛·단맛·감칠맛·매운맛 강도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성분 분석값과 관능평가 결과를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연계해 맛별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모델 개발에 사용한 데이터에서 실제 관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²)는 신맛 94.8%, 매운맛 79.0%, 짭맛 70.9%로 나타났다. 별도의 시판 김치 28종을 활용한 검증에서도 짭맛과 매운맛, 신맛의 예측값이 실제 관능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8000만원

제12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22, 23, 24, 27,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8억810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78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50명으로 15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10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0만8922명이다.

연합뉴스

빛그린산단 토지 11필지 공급…5년 분할납부

LH, GGM 인근 지원시설·주차장용지 경쟁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10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등 총 1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급 토지는 모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근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지원시설용지는 필지별 5억8000만~9억6000만원, 주차장용지는 7억원이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

품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406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다. GGM과 금호타이어 등 주요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계획과 약 15km 거리에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등과 연계해 서남권 산업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지별 활용 범위도 넓다. 지원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판매·업무·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는 전체 면적의 30% 범위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허용한다.

LH는 수요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의 10%를 납부한 뒤 18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6개월 단위로 8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선납할인율은 연 5%로, 일시납할 경우 최대 25% 가까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낙찰자는 오는 11월 3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심사를 받은 뒤 11월 6일까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aT, 식품외식산업 해법 모색

내달 코엑스에서 전문가 강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2027 식품외식산업 전망(Korea Food Outlook 2027)’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과 가치가 융합된 우리들의 오늘 그리고 미래 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2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4일에는 ‘식품’을 주제로 일본 에자키 글리코(Ezaki Glico)의 미셸 리(Michelle Lee)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이 ‘아시아의 다음 식탁: 국경을 넘는 식품 브랜드 구축하기’를 발표하고, 민텔(Mintel) 코리아 이서운 애널리스트가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이 식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소비자 구매·섭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푸드트렌드 2027’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식품산업의 기회와 위협을 주제로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 속 K-푸드의 기회와 위협(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 △유통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분석과 K-푸드 패키징 대응 방안(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ESG센터장)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인공지능혁신추진단장) 강연이 이어진다.

5일에는 외식을 주제로 소비자 변화와 외식업의 성장 전략을 다룬다. 오전에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채선애 트렌드센터장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소비자의 진짜 영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대표가 혼자 살고, 오래 살고, AI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외식업의 기회를 모색한다. 웅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는 중국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이 외식시장에 미칠 파장과 K-브랜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식경영 해법에 초점을 맞춘다. 27년 경력의 생킨 셰프가 ‘유형을 넘어 오래 사랑받는 외식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제이 디브랜드 매문진 대표는 AI·데이터·브랜딩을 활용한 외식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스페이스코넵트푸드(SCF) 양성욱 이사는 한 가게에서 50개 매장으로 확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식업을 장사에서 사업으로 만드는 법’을 공유한다.

예년과 달리 온라인 실시간 중계 없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2027년 식품·외식 산업의 흐름을 확인하고, 강연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나누며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koreafoodoutlook.kr)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하루 1만원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조환형 기자 pose007@gwangnam.co.kr